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2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빨간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눈길-3면(23.12.18.)		농산물원종장	농업인신문
○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현장평가 실시-6면(23.12.18.)		농산물원종장	농업정보 신문
○ 제주농기원,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제작·배부-6면		감귤아열대연구과	뉴제주일보
○ 적색종 용과 재배 책자 제작-14면		감귤아열대연구과	제주신문
○ “붉은 용과 재배 이렇게” 생육시기별 매뉴얼 답아-6면		감귤아열대연구과	한라일보
○ 수경재배 씨감자 디지털 생산시스템 구축-6면		감귤아열대연구과	한라일보
○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아동 지원금 전달-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한국생활개선연합회 지원금 전달-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제주시 생활개선회, 아동지원금 기탁-8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주간농사정보-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수확 앞두고...” 한파에 농민 ‘노심 초사’ -4면		-	제민일보
○ 추위·폭설에 연말 먹거리 물가 비상-1면		-	제주신문
○ 감귤 채소류 가락시장 경락가 오름세 반등-6면		-	한라일보
○ 한파 물러간 제주 평년기온 웃돌 듯-5면		-	한라일보
○ 꿀벌 실종 여전... 6개월새 29% 감소-5면		-	뉴제주일보
○ 제철맞은 월동무 수확-5면		-	뉴제주일보
○ 양배추 수확하는 농가-6면		-	한라일보

(농업인신문: 2023년 12월 18일)

○ 빨간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눈길-3면

빨간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눈길

제주농기원 육성...병에 강하고 상품성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가 현장 평가회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제주농기원이 지난 12월 대정읍 신도리 농가 포장에서 실시한 현장 평가회에서 홍지슬플러스는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생식이 가능하며 볶음이나 감자칩 등으로 조리해도 짙은 붉은색의 선명한 색깔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반 감자에 비해 수분감이 많아 포슬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는 평가도 있었다. 평가회에는 재배농가, 농협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홍지슬



플러스의 생육 및 수량 특성을 평가하고,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지슬플러스는 제주농기원이 지난 2011년 교배 후 생산력 검정 시험(2016~2019년)과 지역적응시험(2020~2022년) 거쳐 2022년 품종보호 출원했다.

홍지슬플러스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돼 괴경 표피와 내부 육색이 모두 짙은 붉은색이며 항산화 등 기능성이 풍부하다.

또 150g 이상의 큰 감자 비율이 많고 둥근 모양에 표피가 매끄러우며 눈의 깊이가 얕아 상품성이 뛰어나다. 역병, 더듬이병, 바이러스 등 병 저항성이 강한 장점도 있다. 휴면기간이 50~60일로 짧아 1년 2기작이 가능하다.

제주농기원은 신품종의 본격 보급에 앞서 도내 감자 주산지인 성산읍과 대정읍의 농가 포장에서 실증시험을 추진 중이다.

제주농기원 고혁신 농업연구사는 “‘홍지슬플러스’는 병에 강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품종으로 최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라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해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18.
농업인신문 3

(농업정보신문: 2023년 12월 18일)

○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현장평가 실시-6면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 현장평가 실시

겉과 속이 빨간 우리품종... 병에 강하고 상품성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2월 대정읍 신도리 농가 포장에서 ‘홍지슬플러스’ 감자 현장 평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농가, 농협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홍지슬플러스’의 생육 및 수량 특성 평가와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지슬플러스’는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감자 신품종이다. 지난 2011년 교배 후 생산력 검정시험(2016~2019년)과 지역적응시험(2020~2022년) 거쳐 2022년 품종보호 출원했다.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돼 괴경 표피와 내부 육색이 모두 짙은 붉은색이며 항산화 등 기능성이 풍부하다.

150g 이상의 큰 감자 비율이 많고 둥근 모양에 표피가 매끄러우며 눈의 깊이가 얕아 상품성이 뛰어나다. 또한 역병, 더듬이병, 바이러스 등 병 저항성이 강한 장점이 있다.

또한 휴면기간이 50~60일로 짧아 1년 2기작이 가능하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신품종의 본격 보급에 앞서 도내 감자 주산지인 성산읍과 대정읍의 농가 포장에서 실증시험을 추진 중이다.

현장 평가 결과, ‘홍지슬플러스’는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생식이 가능하며 볶음이나 감자칩 등으로



제주농기원이 육성한 감자 신품종 ‘홍지슬플러스’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돼 괴경 표피와 내부 육색이 모두 짙은 붉은색이며 항산화 등 기능성이 풍부하다.

조리해도 짙은 붉은색의 선명한 색깔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반 감자에 비해 수분감이 많아 포슬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는 평가도 있었다.

고혁신 농업연구사는 “‘홍지슬플러스’는 병에 강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품종으로 최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라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해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12.18.
농업정보신문 6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제주농기원,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제작·배부-6면

제주농기원,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제작·배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적색종 용과를 신소득 작물로 정착 시키고자 2021년부터 적색종 용과 안정 생산,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재배 매뉴얼에는 3년 간 연구 결과와 현장 컨설팅 결과, 시기별 과실 품질 조사 결과가 실렸다.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은 농업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agri.jeju.go.kr/agri/index.htm>) 농업정보관-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27.
뉴제주일보 6

(제주신문: 2023년 12월 27일)

○ 적색종 용과 재배 책자 제작-14면

적색종 용과 재배 책자 제작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배부.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에는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적색종 용과의 안정 생산,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3년 간의 연구 결과와 현장 컨설팅 결과, 시기별 과실품질 조사 결과를 수록.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적색종 용과 매뉴얼은 26일 함덕농협에서 개최된 ‘적색종 용과 정예소득단지 재배 농가 연찬회’에서 현장 배부됐고,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며 “기후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열대과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27.
허영형 기자 hyh8033@jeju신문 14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붉은 용과 재배 이렇게” 생육시기별 매뉴얼 담아-6면

“붉은 용과 재배 이렇게” 생육시기별 매뉴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적색종 용과를 신소득작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적색종 용과의 안정 생산과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농업인·함덕농협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생육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재배 매뉴얼에는 3년 간의 연구 결과와 현장 컨설팅 결과, 시기별 과실품질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이날 함덕농협에서 열린 ‘적색종 용과 정예소득단지 재배 농가 연찬회’에서 책자를 현장 배부한 한편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아 농업연구사는 “기후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열대과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27.

고대로그자 bigroad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수경재배 씨감자 디지털 생산시스템 구축-6면

수경재배 씨감자 디지털 생산시스템 구축

종자 기반 사업 최종 선정
국비 12억 확보 2년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4년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반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작물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20곳(지자체 9, 민간 11)이 내년도 사업 공모 경쟁에 참여했으며 서면과 발표 평가 등 전문

가의 심의를 거쳐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양액공급·pH·EC 자동제어,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수경재배 씨감자 디지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인 씨감자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농산물원종장은 제주도 내 씨감자 완전 자급과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매년 15t 이상의 수경재배 씨감자를 생산해 봄·가을12.27.급하고 있다. 한라일보 6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아동 지원금 전달-8면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아동 지원금 전달

(사)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회장
정문경)는 지난 22
일 제주농업기술센
터에서 초록우산어
린이재단 제주지역
본부에 아동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2.27.
뉴제주일보 8

(제민일보: 2023년 12월 27일)

○ 한국생활개선연합회 지원금 전달-8면



한국생활개선연합회 지원금 전달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회장 정문경)는 22일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 아동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12.27.
제민일보 8

(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제주시 생활개선회, 아동지원금 기탁-8면

제주시 생활개선회, 아동지원금 기탁

(사)한국생활개선회(회장 정문경)는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에 회원들이 아동지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12.27.
제주일보 8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노지채소, 밭작물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뺀 도랑 정비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노지감귤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괴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도,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시설작물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1월 3일(수)
△오전 10시 가시리사무소=노지감귤, 만감류
▲1월 4일(목)
△오전 10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만감류
△오후 2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1월 5일(금)
△오전 10시 하례1리사무소=노지감귤
△오전 10시 성읍2리사무소=더덕
△오전 10시 귀덕1리사무소=양채류, 쪽파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81

12.27.
뉴제주일보 13

(제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주간농사정보-13면



주간농사정보

◆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 **노지채소, 발작물**

-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빨 도랑 정비
-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 **노지감귤**

-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과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도,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작물**

-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2024년 1월 3~31일

- 1월 3일 오전 10시 가시리사무소: 노지감귤, 만감류
- 1월 4일
- 오전 10시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만감류
- 오후 2시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 1월 5일 오전 10시
- 하례1리사무소: 노지감귤 / 성읍2리사무소: 더덕 / 귀덕1리사무소: 양채류, 쪽파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760-7581-12, 27.

제민일보 13

(제주신문: 2023년 12월 27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2023-52호

주간 농업·농촌소식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 **노지채소, 발작물**

-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빨 도랑 정비
-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 **노지감귤**

-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과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작물**

-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2024. 1. 3. ~ 1. 31.**

- 1. 3.(수) 10:00 가시리사무소: 노지감귤, 만감류
- 1. 4.(목) 10: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만감류
14: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 1. 5.(금) 10:00 하례1리사무소: 노지감귤
10:00 성읍2리사무소: 더덕
10:00 귀덕1리사무소: 양채류, 쪽파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81~3)



12.27.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농업농촌정보-11면

농업농촌정보

농작물 증점 관리 사항

▲노지채소, 발작물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뺀 도랑 정비 △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채소류 연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노지감귤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과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2024년 1월 3일(수)부터 1월 31일(수)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1월 3일(수)=오전 10시, 가시리사무소=노지감귤, 만감류 △1월 4일(목)=오전 10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만감류/ 오후 2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1월 5일(금)=오전 10시, 하례1리사무소=노지감귤/ 오전 10시, 성읍2리사무소=더덕/ 오전 10시, 선을2리사무소=더덕/ 오전 10시, 귀덕1리사무소=양채류, 쪽파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대설·한파 후 농작물 증점관리사항

☐ 노지채소, 발작물

☐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뺀 도랑 정비

☐ 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 채소류 연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 노지감귤

☐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과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작물

☐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2024. 1. 3. ~ 1. 31.

☐ 1. 3.(수) 10:00 가시리사무소: 노지감귤, 만감류

☐ 1. 4.(목) 10: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만감류
14: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 1. 5.(금) 10:00 하례1리사무소: 노지감귤
10:00 성읍2리사무소: 더덕
10:00 귀덕1리사무소: 양채류, 쪽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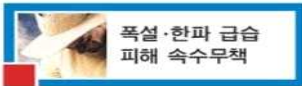
12.27.
한라일보 6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81~3)

(제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수확 앞두고…” 한파에 농민 ‘노심초사’ -4면

“수확 앞두고…” 한파에 농민 ‘노심초사’



성산읍 월동무 농가 한숨
얼었다 녹으며 냉해 우려
현재까지 피해 접수 없어
1-2주 후 상황 확인 가능

“아직 수확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날씨가 오락가락해 속이 타들어 갑니다”

26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십여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A씨(44)는
눈으로 뒤덮인 무밭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 주말 한파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다시 따듯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한파가 2-3번만 반복되면
무를 잘랐을 때 테두리가 검게 썩으면서
먹이 돌고, 푸석푸석하게 스핀
지쳐 버리는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또 “우측은 워낙 날씨가 급변하
12.27. 농작물 재배하기가 쉽지
제민일보 4했다.



26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농민 A씨가 눈에 덮인 월동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기욱 기자

지난 20~22일 제주에 폭설과 한파가
급습하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영하의 날씨가 반복되면 무가 얼었다 녹으면서
냉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종이 늦었던 농가의 경우 아직
수확 기간이 한참 남아 있어 추후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20~22일까지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5일까지 현장

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도내 월동작물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직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월동무 특성상 한파가 한참 지난
후에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동무를 재배하는 농민 B씨(52)는
“파종을 일찍 했던 곳은 지금 빨리 수확하려고 하고 있고, 더 심

한 한파가 오지 않거나 바람만
있다”며 “한파가 지나고 1~2주는 지나야
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파 당시 일부
월동작물이 얼었지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조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제주신문: 2023년 12월 27일)

○ 추위·폭설에 연말 먹거리 물가 비상-1면

추위·폭설에 연말 먹거리 물가 비상

대파·양배추·깻잎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최근 한파와 폭설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 연말연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
이 걸렸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도매가 기준 대파 상품 1kg은 4306원으로
18일보다 34.3%, 평년보다 133.4% 각각
올랐다.

양배추 상품 8kg은 8606원으로 18일
보다 13.5%, 평년보다 11.3% 각각
올랐다.
12.27. 제주신문 1

대파와 양배추는 주요 노지 채소로
한파나 폭설로 출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깻잎 상품 2kg은 평균 3만2600원으로
18일(2만1160원) 대비 54.1%나 올랐다.
평년(2만8099원)보다는 16% 더 비싸다.
적상추 상품 4kg은 평균 1만7200원으로
평년보다는 5.9% 내렸지만 나흘 전보다는
14.2% 올랐다.

상추나 깻잎은 연말연시 고깃집 손

님이 늘면서 수요가 덩달아 치솟는 경향을
보여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가격변동성이 큰
시설채소 등 상황을 살피며 농협을 통한
할인판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들도 물가안정에 동참,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감귤 채소류 가락시장 경락가 오름세 반등-6면

감귤·채소류 가락시장 경락가 오름세 반등

26일 감귤 5kg 1만9733원 나홀 전보다 23.6% 올라
무·당근 경락가격도 소폭 상승… 양배추 소폭 내려

서울 가락시장 2023년산 노지온주 경락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 노지온주 감귤 상품 5kg 한 상자는 1만9733원에 경락됐다. 노지온주 5kg 한 상자의 경락가격은 지난 21일 1만1376원에서 22일 1만5960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23일 1만9733원에 이어 26일에도 1만9733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노지온주 5kg 한 상자는 1만4248원까지 올랐다가 23일 이후 1만3500~1만3800원대로 떨어졌다.

전국 주요 시장·대형마트에서의 감귤 소매가격도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 22일 노지온주 중간 크기 10개는 평균 3478원에 판매됐다. 하루 전인 21일 3461원에 비해 소폭 올랐다. 노지온주 중간 크기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9일 3649원, 20일 3637원, 21일 3461원

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감귤 중간 크기 10개의 평년 소매가격은 2873원이다.

무·당근 경락가격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무 상품 20kg 한 상자는 평균 1만1376원에 경락됐다. 20kg 한 상자 평균 경락 가격은 지난 21일 1만1033원에서 22일 1만982원, 23일엔 1만453원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25일 1만1375원, 26일 1만1376원으로 소폭 오름세로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무 상품 20kg 한 상자는 1만1496원에서 21일 1만1916원, 22일 1만3250원, 23일 1만

3707원, 24일 1만4034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6일엔 1만2724원으로 하락했다.

26일 당근 20kg 상품 한 상자는 평균 2만5822원에 거래됐다. 당근 경락가격은 지난 21일 2만6208원까지 올랐다가 23일 2만4596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5일 2만5491원에 이어 26일엔 2만5822원으로 오르며 소폭 상승세로 반등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서울 가락시장에서 당근 상품 20kg 한 상자는 4만3000~4만8000원선에 거래됐다.

양배추 8kg 한 망은 25일 8441원에서 26일 8137원으로 하락했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한파 물러간 제주 평년기온 웃돌 듯-5면

한파 물러간 제주 평년기온 웃돌 듯
기상청 “28일까지 낮 최고기온 14~16℃로 포근”

한파가 물러난 제주에는 당분간 평년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전망이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2~5℃가량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7℃ 내외, 낮 최고기온은 12~14℃가 되겠다.

28일은 기온이 좀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 7~10℃, 낮 최고기온은 14~16℃로 낮 동안 포근하겠다.

한편 중산간지역 이상 지역에서 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 사이 낮은

기온으로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김채현기자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꿀벌 실종 여전... 6개월새 29% 감소-5면

꿀벌 실종 여전...6개월새 29% 감소

양봉 등록 농가 대상 첫 실태조사

3만2208군서 2만2846군으로 줄어

토종벌은 절반 가까이 감소 '심각'

최근 6개월간 꿀벌 10마리 중 3마리꼴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봉 등록 농가 실태조사 결과 총 209곳 농가가 기르던 꿀벌이 지난 6월 3만2208군에서 이달 10일 기준 2만2846군으로 29.1%(9362군) 감소했다. 벌통 1군에는 보통 1만5000~2만마의 꿀벌이 군집한다.

뉴제주일보 5 3만753군에서 2만2015군으로 28.4%(8738군) 감소한 데

비해 토종벌은 1455군에서 831군으로 42.9%(624군) 줄어드는 등 사실상 절반 가까이 실종됐다.

이는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의 연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부분 수꽃이 꽃을 피우지 않는 시점에 조사가 이뤄져 밀원 식물이 없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봉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가별 양봉장 소재지는 조천읍 54곳, 애월읍 51곳, 구좌읍 22곳, 한림읍 17곳, 한경면 10곳 순으로 많았고, 동지역은 55곳이었다. 연간 소득은 5000만원 이하가 194곳 농가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000만~1억원 16곳, 1억원 이상 3곳 등인 것

으로 조사됐다.

양봉 군수별로는 1~100군 124곳, 100~200군 43곳, 200~300군 25곳, 300~400군 10곳 등이었고 400군 이상은 7곳에 불과했다. 생산 양봉산물은 벌꿀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분 42곳, 프로폴리스 14곳, 가공 꿀 13곳, 로열젤리 5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 양봉농가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직접 현장 방문과 농가 면담 청취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벌꿀 등급제 등과 관련해 차별화된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제철맞은 월동무 수확-5면



제철맞은 월동무 수확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월동무 농가에서 농민들이 수확으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한라일보: 2023년 12월 27일)

○ 양배추 수확하는 농가-6면



양배추 수확하는 농가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이상국기자